



할로윈 마스크

박 새솜

목차

- 준비과정 소개
- 모임 주요 내용 정리
- 다음 모임 계획 및 마무리



준비과정 소개

- 지난 모임 소개 및 컨셉 배경
- ‘할로윈마스’홍보 작업
- 할로윈마스 행사장소 : 새재미 에너지 사랑방



지난 모임 소개 및 배경



- 2014년도 ‘빈벽 프로젝트’ 마을 작가들의 네트워크 모임 진행
- 공동 작업에 대한 필요성 확인
- 공공미술 프로젝트 진행 기획
- 인원 충원을 위한 네트워킹 모임 필요



‘할로윈마스’ 홍보 작업



- 페이스북 홍보 및 참여작가들 전화/카톡 연락
- ‘미트쉐어’ 지원 및 모임 홍보글 게시, 신청자 접수



할로윈마스 행사장소 : 새재미 에너지 사랑방



태양광 에너지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생산 및 절약 정보 나눔 거점 조성

현재 에너지 체험활동 등 마을 커뮤니티 장소로 기능

사진 출처:
http://www.topaa.com/bbs/board.php?bo_table=z3_01&wr_id=126



모임 주요 내용 정리

- 프로젝트 소개 및 실행과제 공유
- 모임 주요 주제 : 공간 새롭게 바라보기
- 각자 자신만의 키워드로 공간에 대한 경험 공유



프로젝트 소개 및 실행과제

프로젝트 소개

아직 이름 못정한 프로젝트 실행 과제

01 연1회 공공미술 프로젝트 실행
지역인 일상의 다양한 예술로서 공존

02 팀원 개별 개인전 1회
전시 장소 선택 및 관측 공간예술지원 전시 가능 범위, 주요 팀원 전시 역량 강화 및 전시 가능한 지역 찾기 방안 연구

03 콜라보 진행
각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일부 함께 참여/공동작업

04 작업 판매, 디자인 상품 유통 경로 확보
2019년 지원 못받던 프로젝트도 계속 운영
판매 고민하고 있습니다

05 블로그 개성
올해까지 기존 프로젝트 사진 촬영 예정
올해부터는 사진만 찍은 작업 이미지와 맞추어 진행 예정
주인 우리 문화예술활동 전이인 홍보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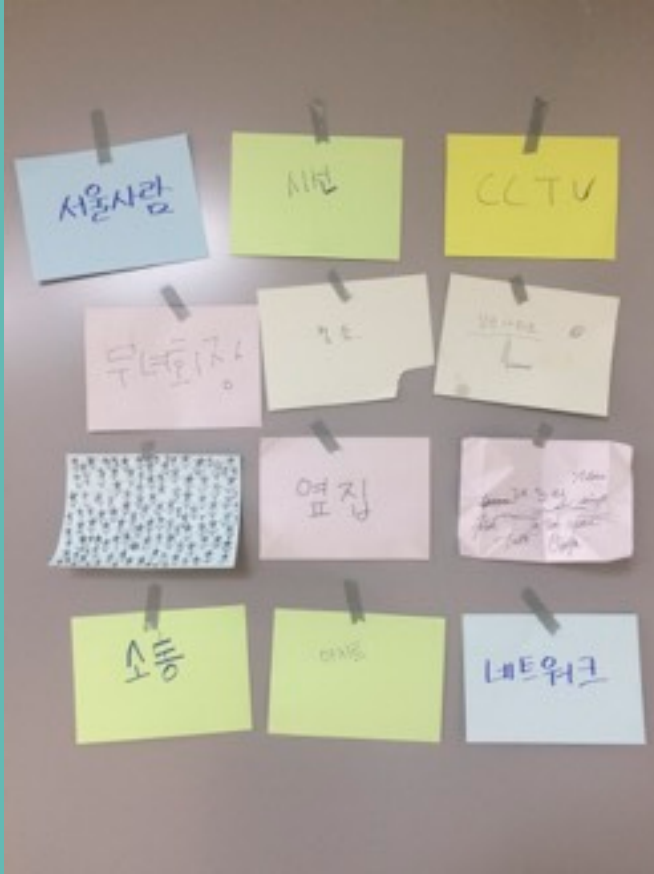
금천구라는 지역성을 가지고 예술 생태계의 다양성을 추구 합니다. 창작자의 활동을 지원하며, 활발한 네트워킹으로 성장 가능성을 확대합니다. 금천구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고 표현하며 사회적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제작합니다.

금천구를 중심으로 창작자 활동 지원과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점 소통을 통해 작가 간의 네트워킹 활성화 및 예술 생태계의 다양성 추구

연 1회 이상 공공미술 프로젝트 진행, 개인전 진행, 콜라보 작업, 창작물 유통 및 수익 창출 사업, 블로그 개설 등



공간 새롭게 바라보기



창작활동 및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한 공통적 주제 제기

작가들의 공통적인 문제 : 작업 공간 확보의 어려움

공간에 대한 실생활에서의 경험 및 느낌을 키워드 형태로 공유(내용 자유)



키워드1 : “젓소”

- 유학생 당시 거주지 근처에서 차로 5분만 가면 펼쳐져 있던 목장과 ‘젓소’들
=> 넓고 탁 트인 외국의 풍경과 공간
- 귀국 후에 언제나 똑같았던 한국의 풍경이 새롭게 보임
=> 어느 곳에서든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이나 산을 쉽게 볼 수 있음
- 지역마다 생활 공간의 넓이는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 간의 거리에도 영향을 미치며 그 차이에서 익숙한 공간이 낯설게 보이는 경험과 <사람 사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함.



키워드2 : “나만의 방”

- 방음이 잘 안되는 집에서 생활하다가 어학 공부를 위해 해외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나만의 방’을 갖게 됨
- 이전에도 자신의 방은 있었지만 방, 거실, 부엌, 화장실, 베란다 등 모든 집 안의 장소에서 독립된 공간을 얻었을 때의 기쁨과 행복, 그 중요성을 알게 됨.
- 금전적으로 넉넉한 지원을 받지 않는 이상, 현재 평균 임금으로는 집을 구매하기 어려운 한국 현실에 대해 문제의식 제기.



키워드3 :“아지트”

- 금천구민문화센터에서 수영을 등록하면서 다양한 체육시설과 알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주요 이용고객은 주부 및 중장년층인 점을 알게됨. 이는 각 동별 주민 센터도 마찬가지
- 금천구에는 세대마다 열린 공간인 ‘아지트’가 존재하지만 학생이나 청년들에게는 부족한 부분을 문제점으로 제기
- 청년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모여서 진행할 수 있는 ‘아지트’의 필요성



키워드4 :“제3의”

-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 후에 처음으로 거주민도 집주인도 아닌 ‘제3의’위치에서 자취생활 시작
- 앰블런스 소리만 들어도 동네어른들이 떠오르던 작은 마을인 고향과 서로 무슨 일이 생겨도 알 수 없는 이방인으로 서울 생활
- 남의 집, 남의 공간에서 거주하면서 주변에 무감각해지고 이웃에게 무심해질 수밖에 없는 삭막한 도시생활의 경험을 공유



키워드5 :“네가 사는 그집”

-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의 무감각을 일상으로 살다가 해외봉사활동을 통해 서로의 사소한 일까지 알게되는 작은 마을에서 생활
- 유일한 외국인인 자신에게 작은 일도 관심 가지고 신경써주던 마을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던 중 옆집 사람이 우는 소리에 자신은 그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에 스스로 충격을 받음
- 이후 당연하게 여겨온 풍요로운 도시의 삶이 오히려 ‘네가 사는 그집’에 아무런 정을 느낄 수 없는 비인간적이고 빈곤할 수 있음을 알게됨.



키워드6 : “삼승아파트”

- ‘삼승아파트’는 지금은 없지만 태어나서 줄곧 살아왔으며 재개발 및 새 아파트가 들어서기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본 아파트
- 철거 분쟁이 2~3년간 지속되면서 창문에 빨간 색으로 칠해진 경고문 등 그 전에 볼 수 없던 풍경 등 평생 살아온 공간이 변모하는 모습과 허무하게 사라지는 아쉬움을 겪음
- 이윤에 의해 빠르게 짓고 빠르게 사라지는 도시의 생리 속에서 어렸을 적 친구들과의 추억 등 돌아올 수 없는 풍경에 대한 안타까움을 공유



키워드7 : “부녀회장”

- 가족 여행중, 지방 관광지에서 과일을 사려는데 터무니 없는 가격을 제시함. 어머니께서 ‘내가 이 지역 부녀회장과 아는 사이다’ 라고 말하자 절반 이상으로 가격이 내려감.
- 그 후 어느 곳이든 어머니께서는 ‘부녀회장’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특별한 대우를 받음.
한국 내 부녀회장의 특권에 대해 생각함.
- 부녀회장의 권리와 특권, 지역 내 연대에 대해 고민하게 된 계기가 됨.



키워드8 : “가위”

- 이사 후 특정 방에서 환영을 보고, 가위에 놀리는 경험이 잦아짐.
- 내가 소유한 공간이었지만 ‘가위’라는 경험을 통해 이질감을 얻게 됨.
- 공간이 주는 경험으로 공간에 대한 이미지가 변할 수 있다.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경험으로 만들어지는 감성의 공간의 영향력을 경험.



키워드9 :“CCTV”

- 회사 내에 CCTV는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설치되어있지만 일 외의 사생활이 감시당하는 기분을 떨어내기가 힘들. 휴식시간에도 CCTV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휴식이 되기 힘들어 CCTV가 없는 공간을 찾아서 휴식을 취함
-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나만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함.
- 작은 낙서(그림)을 그리는 동안은 그 순간과 종이가 나만의 공간이 됨.



다음 모임 계획 및 마무리

- 모임 이후 활동 및 일정 공유
- 마무리



모임 이후 활동 및 일정 공유

11월							12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1	2	3	4	5
8	9	10	11	12	13	14	6	7	8	9	10	11	12
15	16	17	18	19	20	21	13	14	15	16	17	18	19
22	23	24	25	26	27	28	20	21	22	23	24	25	26
29	30						27	28	29	30	31		

뒷풀이 및 향후 모임 준비 회의 진행

아프리카 거주 일러스트 작가 알현회 방문 (예정)

다음 모임 (예정)

